

시청률은 숫자일 뿐...인생드라마로 남은 '그사이'



JTBC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이하 '그사이')가 아쉬운 시청률 속에서 막을 내렸음에도 잔잔한 여운을 이어가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종영한 '그사이'에서 이강두(이준호 분)가 간 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하문수(원진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마지막 회 2.011%...잔잔한 여운 이어가 포털사이트 댓글·홈페이지 호평 일색

오래 살고 힘겨 행복해지자고 다짐했다. 슬픈 결말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류보라 작가는 강두와 문수에게 기적 같은 행복을 선사했다. 또 문수의 내레이션을 통해 '그 기적은 누군가 불행에서 올 수도 있는 것', '더 열심히 힘겨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며 큰 울림을 남겼다. 시청률은 마지막 회에서 2.011%를 기록했다. 1회(2.409%) 이후 1%대에 머물던 시청률이 0.5%p 이상 수직 상승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납스 코리아 제공, 전국 유료플랫폼 가입 가구 기준) 마지막 회에서 시청률이 상승한 현상은 그만큼 꾸준히 본 여성 시청자가 많았다는 방증이고 결말이 감동적이라는 드라마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가 되는 드라마였길 바란다"고, 유진 역의 강한나는 '많은 시청자가 '인생 드라마'라고 불러주면서 좋아해 주셔서 저도 같이 행복했다'고 말했다. 주연을 맡아 큰 재난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로맨스를 연기한 두 주연배우에게는 큰 전환점이 될 드라마다. 이준호는 처음으로 극을 이끌어가 주인공을 맡아 훌륭하게 해냈다. '김과장'에 이어 '그사이'까지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진정한 배우로 우뚝 섰다. 원진아는 드라마 데뷔작에서 주연으로 발탁되며 화제를 모았는데, 제작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매력 있는 마스크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진한 인상을 남겼다. 한편 '그사이' 이후로 5일부터 '오라차차 와이키키'가 방송된다. 김정현, 이이경, 손승원, 정인선, 고원희, 이주우 등이 출연하는 청춘 드라마다.

'그것만이 내 세상' '코코' 1·2위 지속



'그것만이 내 세상'이 1위를 지속하고 있다. 1월31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박스오피스 1위는 9만1527명을 동원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이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216만4498명이다. '그것만이 내 세상'은 한물간 전직 복서 조하(이병헌)와 엄미만(고아성)이 살아온 서브트 증후군 동생 진태(박정민), 살아온 곳도, 잘하는 일도 좋아하는 것도 다른 두 형제가 난생처음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2위를 차지한 '코코'는 5만1513명 동원, 누적 관객 수는 269만16120명이 됐다. '코코'는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 미구엘이 우연히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기묘한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화려한 영상미와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을 선보여 온 디즈니 픽사의 작품이다. 3위는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다. 일일 관객수는 4만1186명, 누적 관객수는 204만331명이다. 인류의 운명이 걸린 위키드의 위험한 계획

에 맞서기 위해 다시 미로로 들어간 토마스(달린 오브라이언)와 러너들의 마지막 생존 사투를 그린 작품이다. '메이즈 러너' 시리즈의 마지막 완결편으로, 역대급 스케일과 액션을 선보인다. '신과 함께-죄와 벌'은 3만4209명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1401만7163명이 됐다. '신과 함께-죄와 벌'은 저승에 온 망자가 그를 안내하는 저승 삼차사와 함께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주호민 작가의 웹툰 '신과 함께'를 원작으로 했으며, '국가대표' '미스터고'를 연출한 김용화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5위는 '1987'로 2만5851명 동원, 누적 관객 수는 707만1878명이다. '1987'은 1987년 1월, 스물두 살 대학생이 경찰 조사 도중 사망하고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냈던 사람들의 가슴 뛰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배우 김윤석, 하정우, 김태리, 유해진 등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이 감동을 자아낸다. 6위는 '1667'을 동원한 '커뮤터'로 누적 관객 수는 25만9149명이 됐다. 리암 니슨 주연작 '커뮤터'는 가족이 인질로 잡힌 전직 경찰이 사

레드벨벳, 2018년 성공 이어간다



레드벨벳의 이번 앨범의 성공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지난달 29일 발매된 레드벨벳 뿐만 아니라 미쓰에이 해체 후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수지 또한 두 번째 미니앨범을 함께 발표해 많은 관심이 쏠려왔다. 또한 최근 컴백한 아이즈은 8일째 음원 차트 1위를 휩쓸고 있고, 장덕철의 '그날처럼' 열풍 또한 이어지고 있었지만 레드벨벳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레드벨벳의 이번 앨범의 성공은 2017년의 성공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활약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레드벨벳은 지난해 2월 네 번째 미니앨범 'Rockie' (루키)를 시작으로, 7월 '빨간맛' 활동으로 정점을 찍으며 '빨간맛'으로 여름 가요시절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이에 그치지 않고 레드벨벳은 이어 11월 정규 2집 'The Perfect Red Velvet' (더 퍼펙트 레드벨벳)을 발매했다. 타이틀 곡 'Bad Boy' (배드 보이) 발매 직후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만이 아니다. 아이즈은 종합 앨범 차트에서 네덜란드, 핀란드,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전세계 16개 지역 1위에 올랐음은 물론, 중국 사비뮤직 종합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레드벨벳은 발매하는 앨범마다 각각 다른 매력을 어필하고 있어 다음을 더욱 기다리게 만든다. 멤버들 또한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어 올해에도 레드벨벳의 활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레드벨벳은 1일 앨범 '엠티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에이프릴, 데뷔 후 첫 2인 유닛 출격...7일 신곡발표



그룹 에이프릴의 스페셜 유닛이 에이프릴 공식 SNS 채널에 오는 7일 출격한다. 소속사 DSP미디어는 1월31일 0시 그룹 에이프릴의 스페셜 유닛이 에이프릴 공식 SNS 채널에

속한 소녀미를 뽐낸다. 특히, 아직 멤버를 공개하지 않아 베일에 가려진 주인공은 누구일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 지금까지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선보여온 에이프릴인 만큼 이번 유닛은 어떤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에이프릴 유닛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유닛 앨범은 오는 7일 공개될 예정이다.

오늘의 순세 2018년 2월 1일 목요일 (음력 12월 16일)

<p>▶ 쥐 금할수록 돌아가란 옛말이 있다.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처신하는 것이 오늘의 화를 면하는 길이다. 신혼 초부터 서로가 자존심 때문에 무언 속에 있는 것은 서로가 손해이다. 3, 4, 12월생 사업상에 문제가 서서히 풀릴 운.</p>	<p>▶ 용 어려웠던 시기가 지나고 희망이 보이는 길일. 주어진 직분에 충실히 임하고 가족의 화합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금전에서 오는 것이며 사랑보다 자식에게 대한 정이 1, 4, 9월생은 더 크다.</p>	<p>▶ 원숭이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일이 생길 수. 희망을 가지고 매진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 나날 듯.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잃어주는 자제가 필요할 때다.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함. 1, 2, 3월생 동쪽 길.</p>
<p>▶ 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려고 하나 지연되는 격.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도 좋으나 가족이 만류하면 중단하는 것이 좋을 듯. 부부가 서로 미워하는 것은 불행이다. 마음을 비우고 아끼며 사랑하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님.</p>	<p>▶ 돼지 언언이 불리할 수 있으니 분산되어 있는 힘을 하나로 모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상책이니 신중히 처신해야 할 때다. 부부간에 남보다 갈등이 더 심하고 마음이 불편하니 2, 3, 6월생은 극한상황이다. 검정색은 피할 것.</p>	<p>▶ 닭 자기 입무에 오직 정진 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뜬소문에 동요하지 말고 소신대로 처신하라. 사업구상은 좋으나 우선 믿는 마음에 상대를 이해하고 조금 양보하는 자세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4, 6, 12월생 행운의 날.</p>
<p>▶ 호랑이 사소한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낼 때이다. 협조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자존심을 버리고 호의를 받으라. 4, 10, 11월생 남에게 준 금전을 받기 힘들어도 보채지 말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p>	<p>▶ 말 그동안의 수고가 결실을 볼 시기. 단호한의지가 필요할 때다. 부린 것들을 수확할 때가 아직은 아니니 욕심내지 말 것. 남자가 하는 일은 손조롭고 여자가 하는 것은 조조할 뿐이구나. 3, 4, 12월생 검정색 길조.</p>	<p>▶ 개 매사에 혼란이 오고 의욕이 하락하겠으니 협조를 청함이 좋을 듯. 쓸데없이 방향하다가 손해수가 있으니 주의 바람. 6, 7, 9월생 사랑하는 사람과 눈치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경제적 문제가 생업에 정진 할 때임을 알라.</p>
<p>▶ 토끼 할 일은 많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힘에 겹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할 때. 흔들리는 길대도 아니면서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구나. 부동산을 팔아서 하면 손실만 따르니 금하고 남서쪽에서 길을 찾아라.</p>	<p>▶ 양 허황된 욕심보다는 더욱더 노력을 요함.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복을 부름을 알라.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격. 해결책을 찾아 노력할 때다. 노란색은 상가.</p>	<p>▶ 돼지 끈질긴 인내와 지혜로 대처할 때다. 주위 사람들과 상부상조하면서 협조한다면 좋은 성과 있을 듯. 직장 다니는 여자는 집안 살림을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제아무리 정이 좋은 부부라도 금이 갈 수 있으니 신경 씀이 좋다.</p>